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승형	소속(학부/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파견 학기	2022 년 2 학기		파견 국가	일본
파견 대학	Kanazawa University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나는 고등학교 때 일본 후쿠오카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과 문화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점이 많아 가깝고도 멀게 느껴졌고 나는 일본의 이런 부분에 흥미를 느껴 일본에 대해 더 알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 생활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대학원 진학과 일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또한 일본 학생 및 유학생들과 교류함으로써 일본어와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해외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나에게 큰 환경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며, 이것은 나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느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제가 입국할 타이밍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입국에 부가적인 절차들이 많이 존재했었으며, 이제 코로나 문제가 끝나감에 따라 관련 절차들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류 준비, 비자 신청, 출국 준비 등과 같은 내용들은 가나자와 대학 측에서 상세히 메일로 안내해 주므로, 메일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양이 많지만 모두 정독하는 것을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나자와 대학의 유학생 지원팀과 본교 담당 선생님께 메일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100만엔 이상의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나자와 대학 자체 양식의 영문 건강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과 대부분의 항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반 검강 검진과 함께 진단받으시면 추가 비용 없이 서류 준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과 불가능한 병원이 있으며 작은 병원은 대부분 불가능했기에 큰 병원에 사전 상담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의 경우 구미 차병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발급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기숙사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으며, 메일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혹시 1년 유학을 희망하신다면 서류 작성 과정에서 먼저 가나자와 대학 유학생 지원 부서에 문의하고, 본교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여 사전에 연장(6개월 → 1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공권 개인이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발급 예정 시기와 기숙사 입거 예정 시기, 개강 예정 시기를 고려하여 항공권 구매 플랫폼에서 저렴한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생활하며 필요한 짐들은 저의 경우 추가요금까지 지불해 가며 수화물로 바리바리 챙겨 넘어갔으나, 항공편으로 보내는 것도 고려하시기 권합니다.
- 수강신청 관련 안내 자료들은 일본어, 영어로 제공되며 관련 오리엔테이션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문과와 이과 교환학생의 소속 부서가 다르고 수강신청 절차도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문과의 경우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듯 했고, 이과의 경우에는

영어만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저는 일본어에는 자신 있었지만 영어가 부족하여 일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직접 선생님께 찾아가 궁금한 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 가나자와는 눈, 비가 잦습니다. 번개가 잦습니다. 바람이 몹시 강합니다.
→ 튼튼한 우산과, 튼튼한 신발, 방수 신발 혹은 장화를 가져오는 것을 권합니다.
- 가나자와 대학은 산 속에 있습니다. 각종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곰이 자주 출몰합니다. 너구리, 토끼, 원숭이 등
- 가나자와 대학은 우리 학교에 비해 몹시 큼니다. 마트까지도 꽤 걸어야 합니다. → 걸을 일이 몹시 많으니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버스는 종종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 가나자와는 교통비가 비쌉니다. → 학교로부터 역/번화가(코린보) 버스 왕복 시 740엔
- 드럭스토어 겐키 : <https://bit.ly/3U9inDp>
꽤 큰 규모의 저렴한 마트입니다. 약, 야채, 생필품, 식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키가케/호쿠메이 기숙사에서 도보 약 25분
- 이온 : <https://bit.ly/3K891Do>
큰 규모의 마트입니다. 식료품,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물건들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키가케/호쿠메이 기숙사에서 도보 약 40분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 가나자와 대학의 일본어 교육 강의들은 질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방향 교육입니다.
- 개강 전 일본어 시험을 응시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일본어 학습 강의에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 필수 수강 학점이 존재합니다. 소속 프로그램,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쿼터당 7학점이 하한이었습니다. 상한은 없었습니다.
- 가나자와 대학은 쿼터제입니다. 한 학기는 두 개의 쿼터로 이루어지며 쿼터 간 짧은 방학이 존재합니다.
- 쿼터마다 수강신청이 필요합니다. (전공 수업의 경우 한 학기의 수업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이 강제됩니다.)
-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 과목들은 실라버스에서 미리 조사하여 준비해 오시기를 권합니다.
- 전공 과목의 경우 첫 수업에 찾아가 교수님께 직접 사인을 받아야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잘 사인해주십시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 초반에 여러가지로 현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현금을 많이 가져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20 만엔 이상)
- 환전 수수료 없이 환전이 가능한, 해외 결제 수수료가 없는 트래블 페이와 같은 카드를 가져가는 것을 권합니다.
 - ➔ 의외로 많은 곳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 ➔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에도 유용합니다.
- 라인 페이 이용을 권합니다.
 - ➔ 아이폰의 경우 라인페이의 애플 페이 연동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에도 유용합니다.
- 기숙사비는 개설하는 일본 통장에서 자동이체됩니다.
- 생활비 지출 :: 11 월 25 만엔, 12 월 15 만엔, 1 월 7 만엔, 2 월 13 만엔 소비하였습니다.
- 우리학교에서의 교환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사키가케 혹은 호쿠메이 기숙사로 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키가케 기숙사 비용은 월 약 3 만엔이었습니다.
 - 호쿠메이는 약 3.6 만엔이라고 들었습니다.

- 가나자와 대학 쪽 버스는 SUICA, ICOCA, PASMO 등의 범용 교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ICA 라는 호쿠리쿠 지역 독자 교통카드를 학교 생협이나 가나자와역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 가나자와 대학 부속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연구 발표를 평가해주는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쿠마카페](#) : 교내에서 재학생, 선생님, 유학생이 교류하는 카페 행사가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 눈 싸움 :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여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유학생들 간 눈 싸움이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 도서관이 넓고 깨끗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 헬스장 시설이 깔끔하고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 수영장이 존재합니다.
- 도서관 건물에 매점과 식당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자주 다닐 만 하지만 한정적인 물건과 한정적인 메뉴로 인해 금방 질려 가지 않게 됩니다.
-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 KISSA : 일본인과 외국인 학생들의 교류를 도모하는 동아리입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매달 일정한 주기로 일본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홍보합니다. 동아리 회원은 당시 14명 중 6명이 외국인 학생들이었고, 재학생, 일본문화연수생, 교환학생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통해 이벤트 기획, 필요한 물품 구매, 홍보 등을 진행합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는 뒤풀이를 즐깁니다. 동아리는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매번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 기숙사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게 되며 스피치토크를 하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 사키가케 기숙사에 배정받으셨다면 그 곳은 방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귀마개, 헤드폰을 구매해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인도를 사정없이 달리는 자전거를 조심하세요.

- 일본 음식은 짜고 답니다. 국산 고춧가루를 챙겨가는 것을 권합니다.
- 일본 피자는 부실합니다.
- 도장은 꼭 한국에서 만들어주세요.
- 선불 데이터 유심은 3일 분이면 충분합니다.
- 입국 후 해야 할 중요한 일들 흐름
입국 시 재류카드 수령 -> 가나자와 시약소에서 주민 등록 -> 휴대폰 개통 / 통장 개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 자신의 일본어 능력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 여러 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영어 학습에 대한 자극을 받았고, 영어로의 소통 능력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학생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Figure 1 교내에 출몰한 새끼곰



Figure 2 수업들으러 가는 길 (아칸서스 브릿지)



Figure 3 사키가케 기숙사



Figure 4 사키가케 기숙사 개인실



Figure 5 가나자와 성



Figure 6 드럭스토어 겐키



Figure 7 강풍에 망가져버린 우산



Figure 8 밤의 히가시차야



Figure 9 눈으로 뒤덮인 기숙사 현관문



Figure 10 눈으로 뒤덮인 기숙사



Figure 11 오야마 신사



Figure 12 가나자와 대학 재즈부 공연

가나자와 대학 교환학생 동기 블로그

1. <https://bit.ly/3ZD3gmW>
2. <https://bit.ly/3Mixk42>